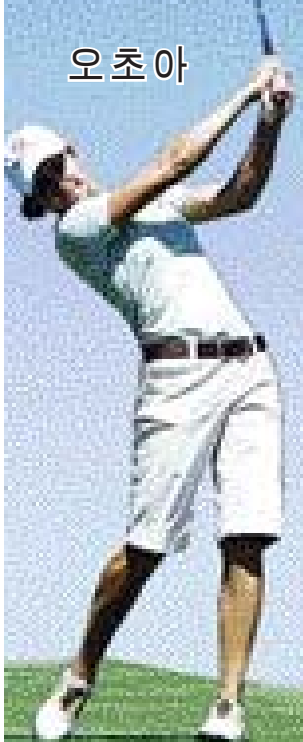




KIA 홈 개막전...5년만에 '만원 관중'

1일 2008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광주 개막전 경기가 펼쳐진 무등경기장야구장에 1만4천300명의 관중이 찾아 만원 사례를 이루었다. 홈 개막전 만원은 지난 2003년 4월5일 한화와의 경기 이후 5년만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女帝’ 독주 vs ‘지존’ 돌풍



오초아

미국 여자 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첫 메이저대회인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이 출전 선수 명단이 확정되면서 서서히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4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란초미라지 미션힐스 골프장(파72·6천569야드)에서 나흘간 펼쳐지는 이 대회는 LPGA 투어 우승자를 비롯해 전 세계 톱랭커들을 엄선해 초청하고 매년 같은 코스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LPGA 투어의 ‘마스터스’로 불린다.
총 상금 200만달러에 우승자가 가져 가는 돈은 30만달러. 올해 대회에도 ‘여제’의 자리를 굳힌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작년 대회 우승자 모건 프레스넬(미국), 시즌 개막전 우승으로 재기의 발판을 다진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 등 쟁쟁한 우승 후보들이 출전해 불꽃튀는 샷 대결을 벌인다.
특히 ‘지존’ 신지애(20·하이마트)가 해외대회에서

오초아·신지애 메이저대회 첫 대결
LPGA 나비스코챔피언십 4일 개막

충분한 경험을 쌓고 이번 대회를 준비해 왔다는 점에서 이 대회에 출리는 관심은 더 뜨거워졌다.

한국 무대에서는 더 이상 적수가 없었던 신지애는 작년 12월부터 해외대회에 출전하면서 경험을 쌓아왔고 지난달 23일 끝난 일본여자프로골프 요코하마타이아 PRGR 레이디스컵에서 우승컵을 차지하면서 자신감은 커졌다. “드라이브샷 만큼은 자신있다”는 신지애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한다면 2009년으로 잡고 있는 미국 무대 진출을 훨씬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신지애의 우승 길목에는 이제 LPGA 투어에서 ‘공공의 적’이 된 오초아가 버티고 있다. 작년 시즌 여덟차례 우승컵을 수확하며 새로운 여제로 등극한 오초아는 올 시즌 출전한 3개 대회에서 2차례나 우승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



신지애

프로야구 용병 개막전 활약도

프로야구 각 구단이 2명씩 보유한 외국인 선수들의 16명 중 선발 투수 5명을 제외한 11명이 지난 주말 개막전을 통해 선을 보였다. 용병 선수들에게는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했다. 8월 올림픽 휴식기를 앞두고 각 구단은 초반부터 총공세를 펼칠 예정이어서 4월 한 달은 외국인 선수에게 팀 잔류와 방출의 중대 기로가 될 예정이다.

일단 합격

- ▲레스 (두산)
▲가르시아 (롯데)
▲크루즈 (삼성)
▲브룸바 (우리)

아직은...

- ▲리마 (KIA)
▲매클레리 (롯데)
▲레이번 (SK)
▲브라운 (LG)

◇일단 합격=4년 만에 두산 유니폼을 다시 입은 두뇌파 투수 게리 레스는 지난달 30일 우리 히어로즈와 개막전에서 5½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고도 무실점으로 복귀 첫 승을 따냈다. 오른손 타자 바깥쪽 면 곳에 걸치는 변화구 제구력은 여전했다. 일본에 진출한 다니엘 리오스(야쿠르트)처럼 빠른 볼로 타자를 억박지르는 스타일은 아니나 안타를 맞더라도 안정적으로 버티는 모습에 김경문 감독은 1선발로서 일단 합격점을 줬다.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로 상대해야 하는 처지인데 볼 끝 움직임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 우려를 안겨준다. 원정 경기에 낮 게임이었던 점을 감안, 일단 더 지켜보아야 한다는 평가다.

수비와 빠른 발을 앞세워 ‘외국인 타자는 공격이 좋아야 한다’는 고정 관념 타파에 앞장선 KIA의 윌슨 발데스는 삼성과 2연전에서 5타수 무안타 삼진 2개, 도루 실패 1개 등으로 공격에 힘을 보태진 못했다. 공격적인 승부보다 변화구로 유인하는 국내 투수들의 불배합을 이기는 게 급선무다. 그는 시범경기에서도 타율이 0.267에 불과했다.

롯데 2선발 마티 매클레리는 한화전에서 홈런 두 방을 맞고 5이닝 동안 7점이나 줬다. 직구에 비해 변화구 제구력이 좋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다.

케니 레이번(SK)과 제이미 브라운(LG)이 지난달 29일 개막전에서 일합을 겨뤘지만 각각 3이닝 4실점, 4와 3분의 2이닝 4실점으로 고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 연도 회원권개 전환기인
특별리 회원권
최저 '특별리 회원권'이 상공회의소에서 월드컵 경기장 및 모아레조트타운으로 확장예정
승수에 일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베소가 되었습니다.
신청 (062)351-0095



“마스터스 대비 실전 훈련”

탱크 최경주 내일 PGA 셀류스턴오픈 출전

이다.

전장도 오거스타내셔널(7천445야드)과 비슷한데다 러프 길이도 같다. 특히 그린은 오거스타내셔널의 ‘유리알 그린’의 복사판이다.

딱딱하고 빠르고 경사가 심하다는 점에서 마스터스를 앞둔 선수들에게 ‘안성맞춤’ 훈련장이 셈이다.

메이저대회를 바로 직전에 열리는 대회에는 좀체 얼굴을 내밀지 않는 상위 랭커들이 대거 이 대회에 물린 이유이다.

세계랭킹 2위 필 미켈스(미국)와 해 스티브 스트리커(미국·4위), 아담 스콧(호주·5위), 최경주(7위), 그리고 11위에 올라 있는 제프 오길비(호주)와 12위 파드리크 해링턴(아일랜드), 17위 양헬 카브레라(아르헨티나) 등이 출사표를 냈다.

미켈스, 오길비, 해링턴, 카브레라 등은

메이저대회를 제패한 경험이 있다. 레드스톤골프장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최경주는 셀류스턴오픈 대회조직위원회가 공동여 모시는 ‘프랜차이즈 스타’이다.

2000년부터 2005년만 빼고 일곱번 출전한 최경주는 코스를 오거스타내셔널처럼 고친 뒤 치른 2006년 대회에서 공동 6위, 지난해에는 공동 19위에 오르는 등 성적이 나쁘지 않았다.

PGA투어 공식 홈페이지는 작년에 준우승을 차지한 스튜어트 애플비(호주)와 최근 CA 챔피언십을 제패한 오길비에 이어 최경주를 우승 가능성이 높은 선수 3위로 꼽았다.

양용은(35·테일러메이드), 나상욱(24·코브라골프), 위창수(35·테일러메이드)도 출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연합뉴스

김진철 KPGA 프로
한국골프협회 이사

한국프로골프협회(회장 박삼구)는 1일 최상호(53), 김종덕(47) 등 두명의 부회장과 14명의 이사진을 선임하는 등 새 집행부를 구성했다.



김진철 프로

부회장은 유임된 성기욱 상근 부회장에 최상호 수석 부회장, 그리고 김종덕 부회장으로 구성됐고 류영환(49) 전무이사는 유임됐다.

또 본보 골프클리닉을 지도하고 있는 김진철(45) KPGA 프로, 김정석 전 감사와 한연희 국가대표 감독, 신용진 프로 등이 새로 이사가 됐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